

여행과 근대, 한국 근대 형성기의
세계 견문과 표상권의 근대*
—허헌의 구미만유(歐美漫遊)를 중심으로—

황 호 덕**

- I. '제3세계'로부터의 필드 워커
—비서구 여행기 연구의 몇 가지 난관
- II. 만유 혹은 외유
—요시찰 관찰자의 세계 여행
- III. 풍경을 넘어서, 지정학적 사유와 여행이라는 형식
- IV. 식민지 여행 서사의 구조
—언표불가능성, 쓸 수 없는 본 것들
- V. 쓸 수 없는 것, 쓰지 못한 것을 읽는 방법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이 글은 1926년 5월 20일에서 1927년 5월 10일까지에 이르는 허헌의 세계일주 여행기를 대상으로, 식민지인의 여행이 갖는 문화사적 의미를 규명한 논문이다. 허헌의 여행은 오리엔탈리즘이나 옥시덴탈리즘의 틀이 아니라, 약소민족, (반)식민지 민족간의 정치적 공감과 연대, 정치 프로그램의 교환을 염두에 둔 시도였다. 즉 우월한 서구 문명의 표상이나 문명적 타자의 발견과 같은 위계화된 세계 지식이 아니라, 신흥독립국, 강한 소국, 반식민지 대표들, 제국 내의 노동자당과 같은 연대가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32-A00154).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능한 세력들을 점(點)으로 잇는 여행이었던 것이다. 아일랜드를 비롯한 ‘소국’들에 대한 관심과 세계피압박민족대회 참가 여정이 보여주듯이, 그의 여정은 발달된 서구 도시에의 감탄을 잇는 여행이라기보다는 피압박 민족 간의 국제적 연대와 공감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마음의 여로였다.

본격 대중문화지였던 『삼천리』에 창간호부터 연재된 그의 구미만유는 비록 완결되지는 못했지만, 표상의 문제가 아닌 ‘사건’의 문제를 여행기의 중요 서술 대상으로 등기시켰다. 특히 사회주의와 민족독립이라는 당대의 문제를 각각 쓸 수 없는 소련, 말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표상불가능’의 영역으로 제시한 그의 여행기는 그 자체로 당대의 세계 지리가 가진 정치적 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편, 새로운 지정학에의 요구로 읽혀진다.

그의 여행기는 가장 영향력있는 정치적 인물의 기록으로, 대중 잡지를 통해 광범하게 유통되었으며 당대의 세계상 변화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여겨진다. 특히 그의 여행은 배워야 할 서양이라거나 표상불가능한 문명적 진보라는 틀을 넘어 국제적 정치 연대의 문제를 지정학적 문제로 환기시킴으로써 제국주의의 지리학과는 구별되는 연대의 지정학을 하나의 과제로서 제시했다 하겠다.

• 주제어

세계일주, 여행기, 피압박민족 간 국제 연대, 쓸 수 있는 것, 표상(불)가능성, 지정학적 실천

I. ‘제3세계’로부터의 필드 워커-비서구 여행기 연구의 몇 가지 난관

흔히 여행가에게는 두 욕망이 잠재해 있다고 한다. 다른 장소에 대한 경험의 필요 혹은 매혹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 어떤 고난을 거쳐 자신이 (듣고) 본 것을 장악하려는 욕구인데 이는 잃어버렸다고 가정되는 어떤 힘-이를테면 남성성과 같은-을 회복하려는 충동과 관련되어 있다. 원시성의 광경을 보고 귀환한 사람의 자부심과 안심, 보다 원초적이거나 보다 선한 상태를 선체험했다고 믿는 사람의 이상주의적 몽환과 조금증을 통해 여행가의 경험은 그가 속한 사회에 대한 평가나 기획에 곧바로 작용한다.

경험적 진실과 이상에 관한 몽환이 거기에 있다. 우리는 여행기들을 읽어가며, 신화적이고 로맨틱한 진실을 만나기도 하고 잔혹하고 엄연한 사실에 직면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는 또한 하나의 여행기로부터, 환영에 이끌려 보고 싶은 것을 창조해버린 여행자의 몽환이나 자신의 속한 장소 안에서 낯선 풍경을 구상하려는 시도들을 읽어낼 수도 있다.¹⁾ 다시 말해 여행기에는 언제나 어떤 일관성이 요청되기에, 실제 체험은 자주 “자신의 독자 속에서 산출하고 싶다고 바라는 체험에 의해 희생된다.” 여행기 자체가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 창출하고자 하는 이념 혹은 이상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여행기를 하나의 징후이자 정신으로 읽게 하는 이유이다. 요컨대 여행가가 발견하고 싶은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야만인과 신이 그들이다. 흔히 전자에서는 자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 확신을, 후자로부터는 자기를 탈구축할 수 있는 이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흔히 있다.

장소가 아니라 장소의 정신이 문제다. 여행기는 장소의 실체가 아니라, ‘장소의 정신’이라는 관점에서 일관성을 획득하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가에게는 텍스트가 주어져 있지만, (여행가나 인류학자와 같은) 필드 워커에게 텍스트는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엇이기 때문이다.²⁾ 여행기가 그리는 것은 장소들이지만, 그 장소들을 결정하고 연결하는 것은 장소의 정신이다. 이 때 말하는 ‘장소의 정신’이란 이미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고 취사선택하는 일관성 뿐 아니라 보았던 것(지

1) Rober Burden, *Landscape and Englishness* (New York: Rodopi BV., 2006), p.104.

2)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Talal Asad, “The Concept of Cultural Translation in British Social Anthropology”, James Clifford, George E. Marcus eds., *Writing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식), 보고 싶은 것(희망), 보아야 할 것(당위)을 연결하는 그런 일관성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서구의 근대 여행기에서 여행자는 종종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곤 하는데, 이들의 모습은 흔히 번역가와 비평가라는 위치와 유비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된다.³⁾ 다시 말해 서구인의 (비서구권) 여행기에 있어 번역가와 비평가는 하나의 텍스트에서 동시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문화(異文化)를 스스로의 언어, 예컨대 영국인됨Englishness와 같은 가치언어를 통해 번역하는 한편, 그 번역의 과정에서 일종의 비평가로 행세하며 다른 문화를 ‘평가’하고 그 문화의 역사와 진로를 정리하고 예감하기도 한다.

원리적으로 보자면, 모든 장소는 그 자체로 고유하다. 장소란 특정한 위치에서 발달해 왔으며 현재도 발달하고 있는 자연과 문화의 복합적인 통합체이다. 하지만, 장소들은 공간적 상호작용과 이동의 체계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다른 장소를 여행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여행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장소란 하나의 순환 구조의 일부이며, 각각의 장소들은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F. Lukerman).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 하면 이 연결과 흐름이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가치중립적 번역가의 자리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특히 서구 여행기에서 이 자리는 대개의 경우 권위있는 비평가의 위치로 전환된다. 여행을 통해 다른 장소에 이르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가 살고 있는 장소(집)의 의미를 확인하고, 상처입은 남성성의 회복이나 숨겨져 있던 욕망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에 의해 매개되는 이문화의 모습을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라 불렀다. 그리고 많은 여행기 연구들이, 바로 이 오리엔탈리즘 비판과 연동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비평가=번역가에게 내재하는 장소의 정신이라 할 오리엔탈리즘을 여행기들 안에서 발견해가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⁴⁾

3) 이 점에 대한 최초의 의미있는 언급으로 Edward W. Said, *Orientalism*,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서울: 교보문고, 2007)를 참조. 만약 번역가의 위치가 앞서 말한 ‘경험’이나 사실의 필요와 관련된 것이라면, 비평가로서의 지위란 잃어버렸거나 획득되어야 할 가치, 예컨대 ‘영국인됨’과 같은 가치와 무관치 않은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4) 백인 군인이든 백인 산책자든 이때의 ‘여행’이란 “그 민족에게 그들이 누구에게 종속된 신민인지 주지시키는 일”과 같은 활동이 되기 마련이다. 예컨대 “말을 타고 인도를 달리면서 소문을 정보로 바꾸고,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있는 유럽인의 형상은 (스스로를) 주인, 혹은 대문자 주체로서의 주권자로 재각인”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스피박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이방인의 진리 가치가 이 거친 지역들의 진실된 역사 혹은 역사에로의 기입을 위한 판단 기준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Gayatri Chakravorty Spivak,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Cambridge:

물론 이러한 여행의 시선은 서양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리엔탈리즘은 지식에 개입하는 권력관계라는 측면에서, 서양과 동양 사이의 복잡한 체계모니와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서의 서양과 동양이란 실체라기보다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권력관계로 쉽게 전환되며 이를 통해 보다 중층적인 의미를 노정해왔다. 다시 말해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일반화된 여행기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 자체가 ‘관계’의 지배라는 독특한 담론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역상인 옥시덴탈리즘 역시 이 ‘관계’ 안에서 일괄된 ‘서구’의 이미지를 구축해 해당 사회의 정치문화적 기획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 서양과 동양 사이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오리엔탈리즘/옥시덴탈리즘은 남성과 여성, 지배자와 피지배자, 자본가와 노동자, 일국과 일국의 내부식민지와 같은 댕쌍 혹은 동양과 서양, 아시아적 정체성과 진보하는 서구, 봉건적 아시아와 민주적 서구, 전근대와 근대의 도식들로 쉽게 이동하며 식민주의를 확산하고 통념화하는 한편 근대화를 제3세계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어떤 오리엔트는 다른 오리엔트에게 옥시덴트의 에이전트로 행세한다.⁵⁾

여행기란 외부자의 기록이다. 이 기록은 여행자와 주민 간의 합의와는 무관하게 특정한 장소를 대변·표상representation하는 지(知)를 구성한다. 그리고 특정한 장소와 문명이 가진 우월한 위치를 지속시키기 위한 전략과 학문, 제도와 연설의 총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여행기가 끼쳐온 영향과 역할은 지대한 것이었다.

다소 장황하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서 발표된 한 이질적인 여행기가 필자에게 던진 파문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1926년에서 1927년까지의 세계 기행을 다룬 허헌(許憲, 1885.6.-1951.8.)⁶⁾이라는 한 식민지인의 여행기는 이러한 문제권과는 매우 다른 양태의 여행기 연구의 지평을 암시하는 듯 하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에 있어서도 여행기 연구는 외국인 선교사 기록 및 서구인들

Harvard Univ. Press, 1999), p.213.

- 5)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오리엔탈리즘의 해악에 대한 지적은 정당하지만, 옥시덴탈리즘이 보여준 근대화/민주화 담론이 가진 역할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리엔탈리즘 역시 생태와 자연의 관점에서 근대화의 회의를 만들어온 측면이 있다. 옥시덴탈리즘이 노정하는 결핍된 주체의 담론처럼, 이 교차 여행은 서로에게 ‘없는 것’을 본다.
- 6) 허헌의 이력과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이 참고가 된다. 심지연, 『허헌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허헌의 세계 일주에는 그의 딸 허정숙(許貞淑, 1903.5.-1991.6.)이 동행했다. 미국까지 허헌과 함께 했던 그녀도 짧은 여행기를 두 편 남기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참고만 할 뿐, 허헌의 기록에 집중하기로 한다.

의 조선여행기에 상당부분 집중되어 왔으며,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일본인들의 조선 관련 기록 역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청결한 일본에 대비되는, 불결한 조선의 이미지⁷⁾를 지적하는 일은 여행기 연구의 상례화된 요목을 이룬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오리엔탈리즘의 내면화’라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두 가지 변형된 형태의 여행기 연구를 유도해 온 측면이 있다. 우선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의 만주여행이나 남양에 대한 심상지리 등을 대상으로 한 반주변부 오리엔탈리즘 담론이 그것이다. 15년 전쟁기에 이루어진 조선 문인들의 만주 및 중국 여행이 보여준 중국인에 대한 관점이 서구 및 일본의 오리엔탈리즘과 형식적 상동성을 지닌다는 견해는 이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지적이 되다시피 했다. 두 번째, 자기원시화를 지적하는 레이 초우의 용어나 자기오리엔탈리즘이라는 강상중의 용어를 빌어 한국인 스스로에 의한 조선/한국의 타자화를 지적하는 연구들이 그간 적잖이 제출되었다. 나아가 염상섭의 『만세전』을 비롯한 여행 서사의 형태를 띤 많은 작품들 역시 조선을 외부자의 시점에서 묘사하고 있음이 폭넓게 지적되어 왔다. 요컨대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이입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한국 근대 (여행 서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계기로서 호명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근대 이후의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산출된 여행기 혹은 식민지라는 조건을 염두에 둔 여행기들의 전체상 분석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특정한 순간에 갈음된 어떤 여행의 기록이다. 무엇보다 여행기 연구가 근대화, 표상(재현)론, 산책자, 세계 체제와 같은 일반적 틀 속에서 논의되어 왔기에, 이 글에서는 특정한 시공간에서의 특정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상되고 차후 삶과 정치·문화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허헌의 구미만유가 그것인데, 이 여행기를 주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 여행 자체가 허헌이라는 인물의 무게와 여행의 규모로 인해 식민지기에 가장 번다하게 보도된 서구여행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여행기가 일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당시의 대표적 대중지로 그의 여행기를 연재했던 『삼천리』는 살아있는 지정학적 지식을 필요로 할 때마다 허헌의 견해를 경청하곤 했다. 둘째, 1927년 5월에서 1925년 5월까지의 약 1년간의 그의 여행시기가

7) 高浜虚子, 『朝鮮』(東京: 實業日本社, 1921), pp.60-61. 이 텍스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 저서로 中根隆行, 『『朝鮮』表象の文化誌 : 近代日本と他者をめぐる知の植民地化』(東京: 新曜社, 2004).

제1차세계대전 이후의 구유럽의 몰락 및 소련의 등장 등이 초래한 새로운 세계 인식의 비등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여행기는 1920년대 중반의 세계사적 변동, 즉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합작 및 교착 속에서 식민지 조선이 어떻게 세계 속의 한 지점으로 인식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예컨대 그려질 수는 없으나 여행기 전체에 무게를 부여하는 소련이라는 땅, 연대해야할 유럽의 소국들에 대한 발견 등도 그러한 사례일 것이다. 셋째 이 여행기에서 허헌이 견지하는 정치적 대표성은 이 여행기를 이전의 전통적 여행기, 즉 주로 관료/외교관들에 의해 작성된 사행기(使行記)들과 연결시킨다. 예컨대 줄곧 자신을 ‘조선(인)’의 대표로 표상하는 허헌의 행보와 여행기 ‘작가’로서의 위치는 좀처럼 조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허헌의 세계 견문이 그 자신 뿐 아니라, 조선사회의 정치적 변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정황들이 적잖이 발견된다. 식민지 이전의 여행기의 관습과 식민지기 여행기들의 표상 장치 사이에 놓인 이 여행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제3세계로부터의 필드워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숙고해보고자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불완전한대로 현재 남아 있는 여행기들을 중심으로 허헌의 세계일주 관련 여행⁸⁾을 논하되 허정숙의 기록 및 이들 부녀의 여행을 사찰했던 일본 관헌의 기록물과 산재되어 있는 두 사람의 단편적 회고들까지를 참고하여 논지를 전개시키려 한다. 또 비슷한 시기(1927)에 유럽을 여행했던 나혜석의 여행기⁹⁾, 1926년 미국을 여행했던 박인덕의 여행기를 비롯한 대중서사화된 일련의 해외 여행기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 동 시기의 여행이 갖는 조선 내적, 세계 내적 의미를 물으려 한다.¹⁰⁾ 이 과정에서 식민지 여행기 및 관련 논설, 서사가 갖는 지정

8) 허헌의 여행기 형식의 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허헌, 『東西十二諸國을 보고 와서』, 『별건곤』, 1927년 7월호.

허헌, 『世界一週旅行(第一信), 太平洋의 波濤 차고 黃金의 나라 美國으로! 布哇에 잠금 들러 兄弟부터 보고』, 『삼천리』 창간호, 1929년 6월 12일.

허헌, 『世界一週旅行(第二信), 꽃의『바리우드』를 보고, 다시 太西洋 건너 愛蘭으로!』, 『삼천리』 제2호, 1929년 9월호.

허헌, 『世界一週旅行(第三信), 復活하는 愛蘭과 英吉利의 姿態』, 『삼천리』 제3호, 1929년 12월호.

허헌, 『新興自由國, 愛蘭印象記』, 『해성』, 1932년 4월 15일.

허헌, 『新聞記者로서 얻은 세 가지 印象』, 『신동아』, 1934년 8월호

9) 당시 세계 여행기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일본이라는 참조점(reference) 이외의 다른 다양한 지역과 공간에 대한 탐색”의 필요를 환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손유경의 논문을 참조할 것. 손유경, 『나혜석의 구미 만유기에 나타난 여행 산책자의 시건과 지리적 상상력』, 『민족문화사연구』 제36호(서울: 민족문화사연구소, 2008.4).

10) 해외 기행문의 온상이자 대중적 세계 지리의 발신소였던 『삼천리』 소재 해외기행의 전체상을

학적 구도와 문화정치학적 의미, 작게는 허헌의 입장과 차후 정치적 선택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세계일주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특정 필드에 대한 비평이나 번역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대표자이자 운동가로서 세계를 견문하는 사람, 그리고 각 장소에 합당한 재현의 방법이 아니라 각 장소에 존재하는 연대의 대상과 지점들을 찾아가는 어떤 여행자의 여정에 동참해보기로 하자.

II. 만유 혹은 외유-요시찰 관찰자의 세계 여행

1. 여행의 동기와 여정-사찰된 시찰

허헌은 한성외국어학교(德語學校)와 보성전문학교(법과)를 졸업하고 약관의 나이에 규장각 서기랑(書記郎, 1898)으로 서임¹¹⁾되었는데, 20대 초반에 이미 기개 있는 변호사로 정평이 나있었다. 해직과 투옥, 외유를 겸한 일본 유학(메이지대학 법과 청강생)을 거듭하며 “변호의 입에 거(居)하여 인민소송사건에 법률상 정리(正理)를 거(據)하여 유력자의 강압을 불수(不受)”¹²⁾하는 인물로 세간에 이름을 떨쳤던 것이다. 그가 3·1운동을 필두로 하여, 조선공산당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 정치운동 재판의 변호인으로 활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해방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공화국 국무총리, 민족주의민주전선 공동대표 및 남로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남북연석회의 실패 후에는 북에 남아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김일성대학 총장을 역임한다. 까닭에 이 신구지식을 겸한 인물 허헌의 세계 일주는 풍경보다는 정치 안에서 기획되었고 세계 속에 있는 그의 의식을 내내 사로잡고 있는 것은 우국(憂國)의 염(念)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어떤 인물의 여행기보다도 지리와 정치 간의 결합이 확연한 지정학적인 여정이었던 것이다.

허헌이 세계 일주를 위해 경성역발 남행열차에 오른 것은 1926년 5월 30일이었

확인한 논문이 최근 제출되었다. 성현경, 『1930년대 해외 기행문 연구-『삼천리』 소재 해외기행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2010). 여행기들의 지리적 분포와 글쓰기 경향 등에 대한 분류는 이 논문을 참고할 것.

11) 『皇城新聞』, 1907년 9월 4일자.

12) 『皇城新聞』, 1909년 5월 25일자.

다.¹³⁾ 오사카를 거쳐 6월 16일 요코하마를 출발, 6월 29일 하와이에 도착한다. 도착하기까지 문을 닫아걸다시피 하고 영어공부에 열중하였으며, 선상에서 ‘세계’ 경험을 시작한다. 한성외국어학교 출신으로 청년시절 영국인으로부터 2년 가까이 영어 교습을 받았던 그는 메이지 대학 수학 시기에 영어에 열중했지만¹⁴⁾ 대면상황을 전제로 한 언어 학습은 녹록치 않았다. 하와이에서 약 10일을 체류하며 교민 사회와 접촉하였으며, 7월 8일 샌프란시스코행 배를 타고 1주일 만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다. 거기서 각국 인종과 자동차로 가득 찬 “동원령이 내린 전쟁시대”와 같은 복잡다단한 대도회를 처음 경험하게 된다. 수일 후 아침 차로 출발해 저녁 해질녘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여 번성한 동포 사회와 영화의 성지 헐리우드를 관광한다. 연이어 서부 여러 주를 경유한 후 시카고에 도착한다. 그 사이에 펼쳐진 광대한 포도원과 오렌지밭과 유전은 기차 안에서 경험한다. 비싼 숙박비로 봉변을 당한 시카고에서 나흘 간 머문 후, 뉴욕을 향한다. 뉴욕에서는 장덕수 등의 유학생·한인민단 사람들과 함께 했으며, 독립 50주년 기념만국박람회를 보았다. 한편 허헌은 뉴욕 교외의 피서지 픽스킬에서 2개월가량 요양 겸 어학을 익히는데¹⁵⁾, 여행 중 의사소통을 위해서기도 했지만 정황상 워싱턴 방문을 비롯한 ‘정치활동’을 염두에 둔 일정으로도 여겨진다. 이 후 워싱턴에서 미국 대통령 케빈 콜리지(John Calvin Coolidge, Jr.)와 면담해 조선독립에의 협조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¹⁶⁾

허헌이 허정숙을 콜럼비아 대학에 유학시킨 후, 미국을 떠난 것은 이듬해인 1927

-
- 13) 『허헌氏 구미만유-삼십일오전열한시경성발』, 『동아일보』, 1926년 5월 30일자. 이 기사에는 유학의 목적과 일정, 송연(送宴) 소식과 사진 등이 상세하게 실려 있어, 이 여행의 사건성을 짐작하게 한다. “조선법조계에서 우이(牛耳)를 삼고 있던 변호사 허헌씨는 그의 현재의 처지에 오히려 만족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조선을 위하여 보다 더 지식의 향상과 법률의 연구를 목적으로 구미(歐美) 유학의 응지(雄志)를 품은 후 그동안 준비에 분망하여 오던 바 요사이 제반 준비가 일체 정돈 되었으므로 씨의 오직 하나인 사랑하는 딸 허정숙(許貞淑)씨를 데리고 명 삼십일 오전 열시 경성역발 남행열차로 경성을 출발하여 유월 십일에 일본 횡濱(橫濱)항을 떠나는 천양환(天洋丸)으로 먼저 미국을 향하여 떠나가리라는데” 허헌의 여행기 자체가 사후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어서, 매번 조금씩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그 결과로 이에 대한 연구들이 제시한 여정도 서로 다르고 오차가 많다) 따라서 여정에 대해서는 되도록 당시 신문, 재미 일본 영사관 기록 등 당시 사료를 참고해 재구한다.
- 14) 허헌, 『世界一週旅行(第一信), 太平洋의 波濤 차고 黃金의 나라 美國으로! 布哇에 잠잠 들러 兄弟부터 보고』, 『삼천리』제1호, 1929년 6월호.
- 15) 通三機密 第274號, 『甲種要視察人 許憲動靜二關スル件』(發送者: 外務省 通商局長 受信者: 朝鮮總督府 官房外事課長), 1926년 12월 15일 發送, 1926년 12월 15일 受信,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件-在歐米(8)』(문서철명). 뉴욕 인근에서 허헌의 행보를 놓친 재미 일본 영사관은 『신한민보』 1926년 10월 28일자를 인용해 허헌의 동정을 보고하고 있다.
- 16) 면담 내용은 실제로는 검열로 인해 삭제되어 있어 정확히 알 수 없다. 다음 책의 유추를 참고했다. 심지연, 『허헌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년 1월 15일이었다. 약 6개월 간의 미국방문길이었던 것이다. 유럽 첫 도착지인 아일랜드에 체재(1월 22일-)하며 신생독립국 아일랜드의 상황과 정치체제를 시찰하였는데, 이 부분이 여행기 중에서 가장 길고 진지하다. 아일랜드에서의 일정을 마친 허헌은 영국으로 건너가 캠브리지시와 런던을 시찰하는데, 특히 런던에서는 오사카매일신문사 특파원과 함께 타임스 신문사를 견학하고, 노동당 당수 맥도날드(Ramsay MacDonald)와 만나 환담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다.

유럽 대륙 여정은 네덜란드를 거쳐 벨기에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필경 당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약소민족대회(1927년 2월 10일-15일)’¹⁷⁾와 관련된 일정이었을 것이다. 이 때 김법린, 이인경, 황우일 등의 독일·프랑스 유학생들은 이극로를 단장으로 대표단을 꾸려 조선 문제를 의제로 올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허헌은 신문기자 자격으로 이 대회에 참가했다. 비록 의제로 상정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들은 조선으로부터의 일본 축출을 결의안으로 상정하려 노력했으며 제국 일본의 조선 통치 현황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헌신했다.¹⁸⁾ 이들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조선 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해당 소식에 대한 기사 게재와 압수가 반복되었다.¹⁹⁾ 이어 프랑스-스위스-오스트레일리아-독일-폴란

17) 당시 일간지들에서는 대회명을 피압박민족대회나 약소민족대회라고 번역하였다. 김법린, 이극로는 세계약소민족대회로 회고하고 있고, 허헌 참가 관련보도에서는 ‘식민지압박반대대회’, ‘반제국침략주의대연맹’ 등 용어가 제각각이다. 공식명칭은 International Congress against Colonial Oppression and Imperialism으로 번역하면 <식민지압박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국제회의>가 된다. 본고에서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세계피압박민족대회’로 통일한다. 이 대회에서의 한국 대표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사료적으로 자세한다. 김법린의 연설문 『한국에서 일본제국주의 정책보고』가 전문 번역되어 있다. 조준희, 『김법린의 민족의식 형성과 실천-1927년 브뤼셀 연설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53집(2009년 3월).

18) 『벨기에』 首都『브뤼셀』에서, 『동아일보』, 1927년 2월 5일자. 이 대회는 코민테른 주최의 반제국주의 및 민족독립기성동맹회 제1회 대회로서 치루어졌다. 이 대회에 대한 기록은 단장이었던 이극로의 것이 자세하다. 이극로는 원동위원회 정치산업부 위원으로 “1. 시모노세키 조약을 실행하여 조선독립을 확보할 것. 2. 조선총독정치를 즉시 철폐할 것. 3. 상해 대한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을 골자로 한 조선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려 시도했으나, 표결에서 3표 차로 저 토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극로, 『苦心四十年』(을유문화사, 1947), p.37. 허헌의 차녀 허근옥의 회고(『나의 아버지 허헌과 언니 허정숙』, 『역사비평』 제28호(서울: 역사비평사, 1994.8.))에 허헌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정치』라는 제목의 보고연설을 한 것(224쪽)으로 되어 있으니, 실제로 이 글을 읽은 것은 김법린이었던 것 같다. 조준희, 같은 논문, 84쪽.

19) 이 대회의 개최는 일찍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다. 동아일보의 당시 보도는 이렇다. “今番 이 會議와 博覽會가 當初의 그 企圖대로 結果에 잇서서 好成績을 나타내어 天下人士에게 現代와가치 正義와 人道의 소리가 一種의 假裝의 標語가 되어잇고 人間社會의 裏面은 依然히 暗澹하며 慘酷한 地境에 陷하여잇는 事情을 如實히 가라치주게 된다 하면 그 功績은 實로 偉大할지니 虛偽와 詭譎이 업고 正義와 人道의 觀念이 强者의 그것보다 徹底한 弱貧한 民族의 부르짖음을 公開한이만큼 우리 人類社會의 平和運動을 爲하여 또는 人間性的 反面인 掠奪, 搾取, 壓迫 等 惡性除去를 爲하여 警告가 될 것이오 卽러서 貢獻과 實益이 크리라고 믿는 바이다.”(『國際反帝國主

드를 거쳐 소련(‘로시아’)에 이르러 약 50일을 체재하지만, 벨기에부터의 기록은 여행기 연재 중단으로 자세히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각 국민에 대한 논평과 유학생·교포 사정을 간단히 적은 글을 통해 여정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²⁰⁾ 정작 주요 목적지였던 소련과 관련된 기록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1927년 5월 일신과 본국 사정으로 허헌은 소련에서의 일정을 급히 마치고 중국을 거쳐 1927년 5월 10일 조선으로 귀국한다. 본디 3년 계획이었지만 여정은 대체로 1년에서 20일 정도가 모자라는 기간이 되었다. 건강이 나빠진 사정도 있지만, 조선공산당 변론 및 신간회 창립과 같은 사안들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 텍스트의 성격과 범주-쓴 것, 쓰지 못한 것, 쓸 수 없었던 것

약 1년간 12개국을 여행한 셈이지만, 일정에 있어서의 각국에 머문 기간이나 중요성은 크게 달랐다. 미국에서 약 6개월(어학연수 2개월 포함), 소련에서 약 50일을 체류하였음을 볼 때, 이 두 장소에 견문의 주안을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하와이, 아일랜드, 벨기에에서는 각각 교민 사회와의 교류, 신생독립국의 국정 시찰, 반제국주의동맹의 가능성 타진 등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지역들은 일종의 ‘경유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 과연 허헌은 무엇을 목적으로 여행길에 오른 것일까. 우선 여권 발급과 관련해 그는 여행의 목적을 구미 ‘사법제도 견학’이라 적었다.²¹⁾ 소위 ‘갑종요시찰인물’로서의 운신의 한계로 인해 직업상 사유 말고는 출국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참고삼아 보자면, 허헌의 여행에 대한 최초의 보도인 『동아일보』의 송별 연회 관련 기사를 보면, 이 여행의 동기가 ‘구미만유(歐米漫遊)’를 통한 유학이라 보도되어 있다.²²⁾

義大同盟 獨逸伯林에서 開催, 『동아일보』, 1926년 9월 10일자) 조선일보 역시 베를린에 본부를 둔 ‘반침략식민지연맹’이 1927년 1월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약소민족대회’를 연다는 기사를 1926년 12월 14일자와 15일자에 걸쳐 보도했다. 이 보도로 인해 당일자 신문은 두 차례 모두 압수당했다. 이듬해인 1927년, 브뤼셀 대회가 당초 일정보다 늦은 2월 10일-15일에 개최되자, 조선일보는 1927년 2월 12일자 ‘세계약소민족대회’란 논설을 통해 “이 대회의 성공을 바라고, 우리 대표의 분투를 기원한다”는 논조를 폈다가 압수되고, 필자는 연행된다.

20) 허헌, 『東西十二諸國을 보고 와서』, 『별건곤』, 1927년 7월호. 이 간단한 논평마저 소련 부분은 전체 삭제되어 있다.

21) 허헌, 『新聞記者로서 얻은 세 가지 印象』, 『신동아』, 1934년 8월호, 35쪽.

22) 『허헌씨 구미만유-삼십일오전열한시경성발』, 『동아일보』, 1926년 5월 30일자.

한편 허헌 자신의 여행기가 실린 두 매체인 『별건곤』과 『삼천리』에서는 각각 이 여행이 ‘외유’와 ‘세계일주’로 표현되어 있다. 명함 역시 동아일보 기자, 보성전문 교수, 변호사 세 종류로 준비했다.²³⁾ 출국 전 인터뷰에서 허헌은 여행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서양각국의 배심재판제도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진보된 법률과 또는 정치의 연구는 물론이요 제반 문물의 제도며 일반사회 상태를 낱날이 시찰하는 한편으로 구미 각국의 유명한 신문사를 탐방하여 신문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할 터이며 또한 위대한 인물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찾아보아 더욱 나의 지식을 수양할까 합니다.”²⁴⁾

연구, 시찰, 탐방, 수양. “장래의 조선을 위하여 보다 더 지식의 향상과 법률의 연구를 목적으로 구미(歐美) 유학의 응지(雄志)”를 갖게 되었다는 것. 어쨌든 넓은 범주의 ‘유학’이 표면적 동기였다 하겠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외유의 성격이 강했다. 3.1운동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이르는 정치변동과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 설립 운동, 상애회(相愛會) 사건 처리²⁵⁾ 등으로 어수선한 때였다. 그는 위에서 언급한 거의 모든 주요 정치 사건에 발기인이나 법률가로 개입하고 있었는데, ‘서양각국의 배심재판제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인 법관 중심의 재판제도에 대한 불신도 엿보인다.

각지에 사는 동포와의 만남과 연설, 미국 대통령 쿨리지와의 회담, 아일랜드 정부청사 방문 및 영국 노동당 당수 맥도날드와의 대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피압박족대회’ 참가 등의 그의 행보를 볼 때, 해외에서의 그의 행적을 단순히 여행, 견문, 유학 등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의도가 어떻든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의 그의 위치가 갖는 대표성으로 인해, 순수한 의미의 유학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그는 조선변호사협회의 회장이자, 동아일보의 이사였고, 모교인 보성전문의 교장을 막 사임한 상태였다) 미국 뉴욕까지 동행했던 ‘붉은 연애’의 주인공 장녀 허정숙은 주지하다시피 여성운동의 전위였는데, 제1차공산당사건으로 남편 임원근

23) “구미를 관찰할 때는 나는 세 가지 肩書의 각이한 명함을 사용하였으나, 첫째는 ‘변호사’라는 견서로서 각국의 사법제도를 관찰할 때에만 사용하였었다. 둘째는 전문학교 교수라는 명함으로 교육제도를 셋째는 신문기자 명함으로 다방면에 관한 관찰을 하였었다.” 허헌, 『新聞記者로서 얻은 세 가지 印象』, 『신동아』, 1934년 8월호, 35쪽.

24) 『허헌씨 구미만유—삼십일오전열한시경성발』, 『동아일보』, 1926년 5월 30일자.

25) 미국 여행에 동행한 허정숙은 박춘금 일당이 일으킨 상애회 사건을 외유의 한 원인으로 거론했다. (허정숙, 『울 줄 아는 人形의 女子國, 北米印象記』, 『별건곤』제10호, 1927년 12월.) 허헌은 상애회에 의해 납치되었다 풀려난 송진우를 대신해 사건 처리를 맡았다.

이 이미 투옥되어 있던 상태였고 그녀 역시 간신히 구속을 면한 상태에 있었다. 이 여행은 갈 길이 막막했던 두 사람 모두에게 일종의 정치적 외유와 같은 것이었다. 제1차조선공산당사건(1925년 11월)의 변호인단 중 한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그 자신 뿐 아니라 딸과 그 주변 인물들 모두가 사회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허헌의 일신상의 정황으로 볼 때, 그것이 만유든 유학이든, 이는 표면상의 목적으로 그의 여행은 견문이 포함된 정치활동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출발 때와 달리 귀국 후에 쓴 여행기에서 그는 자신의 여행 목적을 “외유의 동기라든지 주요목적은 여기서 말씀할 필요가 없겠지요”라는 말로 말 못할 사정을 암시하고 있다. 애초에 단순한 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해도, 그의 여행은 그 자체로 불온한 것이 되었다. “외국에 대한 정치적 형편이나 경제적 방면이나 사상경향 등은 여기서 말을 한다 해도 취급하기 곤란하시겠지요”²⁶⁾라는 말의 의미는 아마 그런 것일 터이다.

총 3만 엔 가량의 동산·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토지를 매각해 마련한 약 1만 2천 엔의 여비란 단순한 여행이나 유학을 뜻할 수 없었다.²⁷⁾ 더하여 허헌에 대한 소개에서 운동가(무료) 변론과 함께 늘 빠지지 않는 이력인 북경국제변호사대회 출석과 벨기에 세계피압박민족대회 출석이 보여주듯, 이른바 해외 경험 자체가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는 커다란 자산이자 상징이었다. 그의 행보는 조선을 넘은 무대로의 비약, 조선과 세계에 던지는 큰 파문으로 언급되곤 했다.²⁸⁾ 서양화(西洋化)로 인식되곤 한 근대화의 욕구도 그렇지만, 식민지라는 특성상 지도자급 인물에게는 정치문화적 국지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국제 정세 판단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의도가 어떻든, 그의 여행은 ‘공공적’이었다. 무엇보다 일본의 관헌이 해외 영사관을 통해 이 요시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의 교민 상대 연설의 세세한 내용까지도 현지 영사관-외무대신-외무성 통상국장-조선총독부 관방외사과장의 공기밀 보고 라인 안에서 세세하게 보고되고 있었다.²⁹⁾ 그는 일본

26) 허헌, 「東西十二諸國을 보고 와서」, 『별건곤』, 1927년 7월호, 44쪽.

27) 1920년대에 서양을 비롯한 각국 여행, 소위 세계일주를 한 인물들의 여비를 기록한 『삼천리』 기사에 따르면 최린이 1만 6천 원, 허헌은 허정숙의 비용을 포함해 2만 원, 김성수는 병치료를 곁해 2만 3천 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기자, 「세계일주의 여비」, 『삼천리』, 1933년 9월호, 56쪽.)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딸 허정숙이 쓴 것까지 포함해 1만 2천 원가량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적고 있다. (허헌, 「東西十二諸國을 보고 와서」, 『별건곤』, 1927년 7월호, p.44.) 기독교나 천도교 등의 지원에 의한 구미여행이나 유학을 제외할 때 개인차원에서 세계일주 여행이란 그야말로 특별한 사건이자 경험이었다.

28) 「명사의 멘탈테스트 其四: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허헌 씨」, 『삼천리』 제3호, 1929년 12월호, 14쪽.

29) 公機密 290號, 「甲種要視察人 許憲寄港二關スル件」(發送者: 桑島主計, 受信者: 幣原喜重郎), 1926年 7月 19日 發送, 1926年 8月 7日 受信,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件-在歐米(8)』(문서철

의 주권역을 넘었지만, 그가 조선에 귀환해야 하는 한 걸코 이 월경은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시찰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여행은 정치적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여행’은 일 개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조선의 ‘대표’ 중 한 사람의 활동이었던 것이다.

허헌의 소위 ‘세계일주기행’ 관련 여행기는 귀국 후 바로 쓴 짧은 귀국 보고(『東西十二諸國을 보고 와서』, 『별건곤』, 1927년 7월호)가 있고, 본격적인 것으로는 『삼천리』에 3회에 걸쳐 연재된 『세계일주기행』(1929년 6월~1929년 12월)이 있다. 그러나 이 연재는 허헌의 투옥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광주학생사건 발생의 즈음,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허헌이 민중대회 기획을 주도하다 1929년 12월 13일 체포되어 구속되어 버린 것이다. 연재는 하와이, 미국, 아일랜드, 영국 이야기에서 중단되었으며, 주요 사건과 견문이 있었던 유럽대륙과 소련 기행은 여러 글을 통해 단편적으로만 확인된다. 한편 뉴욕까지 동행했던 허정숙 역시 하와이와 미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짧은 수상들을 썼으나³⁰⁾ 전체 여정과 견문을 기록한 본격적인 여행기는 남기고 있지 않다. 광주학생사건 때의 학생맹휴 기획과 당(黨) 관계로 허헌과 함께 투옥되어 있던 허정숙³¹⁾ 역시 비슷한 시기에 본격적인 여행기 집필을 시도했던 것만은 확실하다. 복역 중 둘째 아이의 출산을 위해 일시 석방되었을 무렵, 허정숙은 『삼천리』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행기 집필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여행기를 초(草) 하기 위해 아버지 허헌이 그 당시 『삼천리』에 집필 하였던 구미여행기의 부분 부분을 빌어다가 열심히 보고 있더니 포리(捕吏)는 아마 집필의 여가도 주지 않고 데려간 듯하다”³²⁾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에게는 여행, 즉 여가를 정리할 여유가 별반 없었던 것 같다.

명) 등의 일련의 기밀 보고 문서들을 볼 때 허헌의 여정은 본국의 요청으로 일본 영사관에 의해 계속 사찰되고 있었으며, 허헌이 이 사찰을 따돌린 것은 뉴욕에 이르러서였다. 차후 일정에 일본 해외 공관들의 감시가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해당 관련 정보 참조.

30) 허정숙, 「울 줄 아는 人形의 女子國, 北米印象記」, 『별건곤』 제10호, 1927년 12월 20일.

31) 『삼천리』지는 허헌과 허정숙의 정치적 연대 과정을 당시 투옥에 비유해, “한 지붕 아래서 한 술에 밥을 먹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許憲 父女와 鄭鍾鳴 母子」, 『삼천리』, 1932년 2월호, 32쪽.

32) 기자, 「現代女流思想家들(3), 붉은 戀愛의 主人公들」, 『삼천리』, 1931년 7월호.

Ⅲ. 풍경을 넘어서, 지정학적 사유와 여행이라는 형식

1. 신생국의 탄생과 통일전선-반제(反帝)전선에서 비교정치까지, 여행 전후의 세계

어떤 의미에서 모든 여행기는 근본적 수준에서 정치적 기획이자 정치의 판타지라고 할 수 있다. 본 것은 보고 싶은 것으로 전화된다. 우리는 ‘거기’서 ‘여기’에 요청되는 것을 보거나, ‘여기’에서 ‘거기’에는 없던 것을 발견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있는 것이면서 또한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상상했던 지리나 지정학적 지식에 배치되는 현실을 경험하며 관점을 수정하는 과정 역시 존재한다. 여행기 텍스트란 이 낙차와 낙차 극복에의 의지를 통해 지정학적 사유를 보편적 이상에 접속시킨다.

허헌이 세계일주 길에 올랐던 1926-7년은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새로운 이상으로 비등했던 시기이자, 운동 내부적으로는 소위 ‘주의자’들의 대량 검거와 민족운동의 위기국면에 따라 기존 민족주의 노선과의 통일전선이 준비되고 있던 때였다. 주지하다시피, 1920년에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국제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이었지만, 전후 처리와 승전국 중심의 신질서 구축을 의도하고 있었다. 이보다 앞선 1919년 3월, 소련 볼셰비키혁명 지도자들은 국제 노동계급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취지에서 국제적 공산주의조직인 코민테른을 창립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래 민족 원칙이 승리한 시점이 바로 제1차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었던 것이다. 중앙 및 동부 유럽에 걸친 거대한 다민족적 제국의 붕괴와 연합국들로 하여금 볼셰비키 카드에 대해 일순적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만든 러시아혁명의 결과, 요컨대 1926년 전후는 국제연맹과 코민테른의 대립 구도 속에서 세계가 ‘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요동하고 있던 시기였다. 피압박인민은 ‘피압박소수민족’으로 지칭되었으며, 아직 제3세계로 불리지는 않고 있던 곳에서의 해방은 이제 ‘민족해방’ 또는 맑스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민족 및 사회해방’으로 인식되었다.³³⁾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세계 통일전선 운동이 비등했던 이 때, 즉 1924년 코민테

33) E.J.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172-178쪽.

른 5차대회에서 1928년 6차대회에 이르는 시기는 중국의 제1차국공합작(1924-1927)으로 대표되는 ‘통일전선 실천의 시기’이자, ‘레닌주의’를 국제화하여 ‘이론의 통합’을 꾀하던 시기였다. 허헌 스스로가 참여했던 세계피압박민족대회 역시 독일공산당(KPD) 지도자 빌리 뮌첸베르크(Willi Münzenberg, 1889-1940)가 코민테른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제안한 모임으로, 피압박민중과 식민지 인민을 결속하기 위한 국제반항식민지대연맹(Liga gegen Imperialismus und für nationale Unabhängigkeit)이 이를 주도하였다.³⁴⁾ 귀국 직후, 허헌은 자신이 외유중이었던 1927년 2월 15일에 설립된 신간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대적 조류와 경험이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을 맡는 데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간회 자체가 중국식의 민족통일전선 조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더구나 코민테른의 12월 테제는 조선혁명의 성격을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로 규정하였으며, ‘조선공산당’의 국제적 인준에 실패한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로서는 신간회로의 합류가 불가피해졌다.³⁵⁾ 요컨대 허헌이 여행에 나선 때를 전후해 ‘피압박약소민족’의 정치적 독립과 그 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민족주의의 통일전선이 문제시되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정세 변화를 미리 체험하고 있었다.

허헌의 사회주의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글로는 알기 어렵다. 회고나 사변의 글을 별로 남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방 후의 활동에는 늘 조직의 대표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과의 인연은 개인적으로는 딸 허정숙을 통해서였고, 공식적으로는 귀국을 전후로 한 제1차 공산당사건의 변호로부터 본격화되었다. 그가 행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변론이나 장녀 허정숙에 대한 관용을 통해 그의 이념적 기울기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가 공산주의자들의 다수 참가로 확대된 신간회에서 중앙집행위원장에 추대되면서부터 ‘허헌은 공산주의자’라는 우익 진영의 반대목소리가 공공연해졌고 신간회 운동 자체도 대중화·급진화되었다는 사실이다.³⁶⁾ 하지만 이 시기까지의 그의 입장은 대체로 민

34) 조준희, 『김법린의 민족의식 형성과 실천-1927년 브뤼셀 연설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 53집(서울: 한국불교학회, 2009년 3월).

35) 조선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던 사실상의 조선공산당 승인 취소는 역설적으로 허헌과 같은 혁명운동과 관계된 민족주의 성향의 인물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된다. 1925년 4월 결성된 조선공산당은 대검거 선봉으로 위기에 처했고, 이어서 내리건 “혁명투쟁의 도정에서 일시적 제휴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허용된다. 예컨대 필요에 따라서는 공산당과 민족혁명운동과의 일시적 동맹은 허용된다.”(코민테른 제6회 식민지·반식민지 테제, 1928.12.)는 테제는 실제로는 운동 조직의 괴멸 과정과 겹쳐졌다. (고준석, 『조선공산당과 코민테른』(서울: 공동체, 1989), 18쪽.)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건국준비위원회 및 조선인민공화국 참가, 민족주의 민주전선 공동대표 활동 및 북한 정착 등 해방 후 허헌의 정치적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다.

족자결권의 문제에 대한 레닌의 옹호나 1928년 전후의 통일전선에 대한 ‘공감’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족주의자로서의 체질상, 그는 생애의 거의 마지막까지 공산주의 운동 자체를 민족운동의 전위로서 파악하려 했으며, 사회주의를 민족국가 건설의 방법으로 여겼다.³⁷⁾ 이를테면, 세계 일주 중에도 허헌의 최대 관심은 신생독립국의 문제였다. 사회주의자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결코 민족주의를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보자기’로 보거나 이를 떨치려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서는 당운동이나 주의자들을 피압박민족의 국제적 단합을 지지하는 세력 혹은 해방운동의 전위로서 파악하려 하였던 것 같다. 실제로 허헌은 해방 후 공산당 창당 21주년 기념행사 민족주의민주전선 중앙위원회를 대표한 축사자리에서조차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과학적 판단과 해방운동의 국제적 관련성 아래 “조국해방을 위하여 포악한 탄압과 박해 속에서 홀로 영웅적 투쟁을 계속하여 왔”기에 이에 감사한다고 말한 바 있다.³⁸⁾ 영국 노동당 방문의 인상, 사회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편성된 세계피압박민족대회의 경험으로부터 박헌영 등의 조선공산당원에 대한 변호 및 신간회 활동까지의 그의 ‘공감/연대’의 경험이 건국준비위원회 및 조선인민공화국 참가, 민족주의 민주전선 공동대표 활동 및 북한 정착 등 해방 후 허헌의 정치적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이 여기서 짐작 가능해진다.

2. 독립한 소국, 강한 소국의 발견—아일랜드, 소생하는 불사조

192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종합대중지들에 실린 여행기들에는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방향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근대인 혹은 반개인(半開人)의 입장에서

36) 신간회는 본래 비계급적 민족단일당 조직으로 출발했지만, 1928년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검거선봉으로 체포된 공산당 사건 관련자의 약 4할이 신간회회원이었다는 기록이 있음을 볼 때, 그의 위원장 선출은 민족운동의 사상적 전환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지만, 사회주의를 아우르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연, 『허헌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37) 허헌의 입장은 “자본주의적 국가들이 존속하는 한, 또 제국주의적 세계정책이 개별 국가들의 내적, 외적 삶을 결정하고 형성하는 한, 민족자결권은 전시에도 평화시에도 그 나라의 실천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식의 인식이나 “민족주의는 사회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이나 세력”이라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 같다. 민족 문제를 둘러싼 레닌—룩셈부르크 간의 논쟁에 대해서는 박호성,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서울: 까치, 1989), 232쪽 전후를 참조.

38) 허헌, 『祖國解放의 가장 勇敢한 鬪士는 共產黨이었다』, 『解放日報』, 1946년 4월 21일자.

미개지역을 발견하는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한 사고가 없지 않았다.³⁹⁾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주에서 인도(인디언/아메리카원주민, 인용자)를 경탄”한다는 식의 인종적 동질감이나 아일랜드 자유국에서 조선의 미래를 보는 공감, 인도·필리핀 등의 여타 식민지 속에서 공동의 과제를 환기하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자의 직업과 관심에 따른 여행 목적의 세분화에 따라 예술 기행이나 제도 탐방으로 분화된 여행기들이 나타났다. 허헌 역시 그러한 흐름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지사적 풍모와 정치적 위상은 그의 여행을 일종의 유사 외교 행위, 시찰로 만들었으며 따라서 그의 여행기는 조선말, 구한국의 관료 여행과 다소 연속되는 측면도 있다. 개인의 여행이지만, 조선 전체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자주 ‘대표자’로서 발언하고 행동한다. 동양 정세와 조선 문제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대표자 혹은 보고자로서 대답하는 허헌의 모습들은 그의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사적 여정이 결과적으로 일종의 문화적 자기 제시(self-presentation)의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서양에선 누구나 동양인이 된다. 문제는 조선인인 한에서, 어떤 동양인이 될 것인가, 중국을 택할 것인가 일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문화적 자기 제시의 프로그램 속에서 그는 중국문제에 공감하며, 아일랜드를 모델로 느끼는 연대 의식 속에서 조선을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허헌의 여행기에 가장 많이 빈출하는 것은 ‘동포’·‘형제’들의 소식이나 보고 경탄했던 문물이지만, 실제로 주요한 관심은 다음의 세 가지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신생독립국들의 상황과 조선의 방략이라는 문제, 둘째 미국을 비롯한 구미 제국들과 그 국민들에 대한 탐색, 셋째 사회주의 이행기의 소련의 문제가 그것이다.

우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관심에 주목해보자. 앞서 살폈듯이, 1926년을 전후 한 시기는 제1차세계대전 후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과 전후 처리 과정에서 아일랜드, 폴란드를 비롯한 신생독립국들이 자리를 잡아가던 때이기도 했다. 조선은 실패했

39) 차혜영이 지적한 내면화된 문명의 위계, 문명인의 자리에서 구경거리로서 제3세계를 보는 태도는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기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차혜영, 『세계체제 내 식민지 근대의 심상지리: 1920년대의 해외 기행문』, 민족문화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서울: 소명출판, 2004.)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내면화된 식민주의나 심상지리, 산책자 등의 문제와는 상당히 다른 국면이 소위 세계 여행기들 속에 존재한다. 문화사 혹은 운동사적 차원에서 볼 때, 1920-30년대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사유의 강화와 연대의식을 내장한 세계상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해명거리이다.

지만, 성공한 나라들도 있었다. 더 이상 영미독불과 같은 대국이 조선이 가야할 길은 아니었다. 부국강병을 모두 이룬 근대화된 ‘제국’이 될 때까지 독립을 준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인식이 팽배했으며, 1930년대를 지배한 아일랜드 열풍과 같이 ‘다른 모델’들이 부각되고 있었다. 허헌의 여행기가 이전의 공적 여행기들이나 나혜석·박인덕 등의 세계 여행기, 유학생들의 체재기와 구별되는 특징은 그가 대국들 사이의 소국,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게는 왜 소국이 문제였으며, 어떤 과정에서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을까.

소위 구주의 ‘소국’들이 동아시아의 근대 형성기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⁴⁰⁾ 하지만 소위 ‘서구’를 대표한 것은 대제국들이었으며, 제도의 도입도 이들을 모범으로 행해졌다. 소국들이란 기껏해야 세계 지배의 대리자들인 대제국의 뒤쪽에 서 있는 ‘다수’들일 뿐이었고, 한 두 국가가 사례로서 언급될 뿐이었다. 이를테면 유길준의 『서유견문』에는 서구 여러 도시에 대한 경험과 평가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등장하는 ‘소국’의 사례가 벨기에이다. 거기서 수도 브뤼셀(富羅泄)은 “소파리(小巴里)라고 하는데, 거리와 가게의 화미(華美)함과 인민들의 부유(富豪)한 기상이 파리와 약동(略同)하기 때문이다”⁴¹⁾라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소국’ 벨기에의 브뤼셀이 ‘대국’ 파리의 축소된 유사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독자들의 상식이나 상상의 범위 안에서 비유의 체계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관심과 지식이 미미했던 지역이기도 했던 까닭이다.

반면 허헌은 오히려 소국 안에 현실화될 수 있는 조선의 ‘가능성’이 잠재해있다고 믿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여행에서 돌아온 허헌은 이번 여행의 아쉬움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다닌 나라 수는 12개국인가 봅니다. 유감은 오스트리아(丁抹)·멕시코(墨西哥)를 못 본 것과 이태리 및 구주전쟁 후 새로 일어난 제국(諸國)

40)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근대국가 구상에 있어서도 초기부터 소국 모델이 주목되었다고 한다. 다나카 아키라는 『미구회람실기』에 보이는 역사적 복류로서 소국에의 길을 계보화하여 이를 전후 일본국 헌법과 연결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3대국’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벨기에와 스위스의 만국박람회 출품을 보며 “백성의 자주를 이룩하고 부를 축적하는 모습은 대국을 감동시킨다”고 언급한 대목이나 빌헬름 텔 신화로 대변되는 스위스의 애국심과 무훈에 대한 관심에서 보이듯이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소국이 일본에 준 영향은 그 ‘절실함’에 있어 결코 대국들에 대한 그것에 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일전쟁 이후의 대국주의와는 달리, 근대 초기의 여행기는 자주와 자유를 유지하는 소국의 입장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田中彰, 『明治維新と西洋文明－岩倉使節團は何を見たか』, 현명철 옮김, 『메이저 유신과 서양문명－이와쿠라 사절단은 무엇을 보았는가』(서울: 소화, 2006), 76-77쪽.

41) “此府를名호야小巴리라謂호니街衢店肆의華美함과人民의富豪호氣色이巴里와略同호緣故라” 杞溪 俞吉濬 輯述, 『西遊見聞』, 開國四白九十八年, 出版校閱 魚允迪·尹致昨 發行所 交詢社, 1895, 554쪽.

을 못 본 것이 유감입니다.”⁴²⁾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다. 분명한 것은 상대적 소국들과 새로 독립한 나라에의 관심이 선명히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변화된 국제 정세가 가능케 한 신생 독립국의 존재는 새로운 지정학적 사유를 낳은 중요한 동인이었다. 실제로 그의 여행기에서 가장 여러 번 회상되는 장면이 자유 아일랜드에서의 일이다. “이번 세계일주 여행에 아일랜드에 몹시 치중하였으니만치”⁴³⁾라는 그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의 아일랜드는 식민지 조선인에게 심상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보려했는가. 세계대전 중이던 1916년 아일랜드에서 소위 부활절 봉기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영국-아일랜드 전쟁으로 번졌고, 1921년 12월 6일에 드디어 아일랜드 자유국이 승인(1919년 1월 21일 독립 선언)되었다. 영국-아일랜드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아일랜드의 32개주 중 남부 26개주가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독립하였던 것이다. 허헌이 방문했던 때는 자유국 성립 1년 후 일어난 아일랜드 내전의 참화가 여전히 가시지 않았던 때였다.

내가 지금 도착한 퀸스 타운 항으로 말하면 속칭 황후촌이라 하여 얼마 전까지도 시가 찬연한 훌륭한 도시이더니 수백년래 영국령이 되어 오는 동안에 불절(不絶)히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그만 말할 수 없이 황폐해져서 처처히 총화의 세례를 받은 건물과 파손된 가로 때문에 처참한 느낌을 가지게 하더이다. 나는 8시간을 이 항구에 배가 정박하는 틈을 타서 동선했던 캐나다 신핀 당지부장 부부와 함께 택시를 불러 타고 시가를 지나 그곳 공원에까지 올라가 보았는데 사방이 보이는 아일랜드의 전야(田野)도 모다 전쟁을 치고 난 자리같이 지름끼라고 없고 수목도 불에 탄대로 있고 도로나 교량도 파손된 것이 많았더이다. 민가의 건물인들 미국에서 보던 것 같이 정미(整美)한 것이 하나인들 어디에 있으리까. 실로 만목처참(滿目悽慘)하다는 말은 이를 가리킨 듯 하더이다. 그래도 요즈음에는 자유국이 된 뒤에 신정부의 손으로 부흥사업이 흥히 일어나는 모양으로 길가마다 새로운 시가수(市街樹)가 서기 시작하고 또 시구(市區)도 개정이 되며 좌왕우래하는 아일랜드인(愛蘭人)의 얼굴 위에도 희망과 정열의 빛이 떠오르더이다. 나는 이 모양을 보고 잣 속에서 날개를 털고 일어나는 ‘불사조’라는 새를 생각하였소이다. 아일랜드와 아일랜드민족을 보고 죽지 않는 새를 연상한 것이 어찌 옳은 것 같아서요.

아무리 대단한 문물에 대해서도 별반 영탄의 어조를 드러내지 않던 허헌이지만

42) 허헌, 『東西十二諸國을 보고 와서』, 『별건곤』, 1927년 7월호, 44쪽.

43) 허헌, 『世界一週旅行(第三信)』, 復活하는 愛蘭과 英吉利의 姿態, 『삼천리』제3호, 1929년 12월호, 16쪽.

자유국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걱정을 숨기지 않는다. “에란은 실로 자유롭더이다. 지배를 벗어나서 이제는 명실이 모두 같게 독립이 되어 있더이다”⁴⁴⁾라는 언급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주하는 작은 자유국의 비전은 당시 지도적 위치에 있던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아, 가장 현실적인 조선의 행로로 인지되었을지 모른다.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는 아일랜드 법원의 도서관에 대해서도 “최신지식을 흡수하기에 급급한 신흥국가의 의기(意氣)가 경탄할 만하”라고 적고 있으며 운동의 권리와 감방 내에서의 부부 면회를 보장하는 감옥 제도 속에서도 “문명국가의 금도(襟度)”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소국의식이란 일본의 한 학자가 한국 내셔널리즘의 특징으로 이야기한 ‘소국의식=의존’의 논리 구조와는 다른 ‘자유’와 ‘독립(자주)’에 관한 것이었다. 기무라 칸(木村幹)에 따르면, “한국에 있어서의 내셔널리즘이란 그 ‘강력함’과 ‘격렬함’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다른 종류의 소국의식에 의해 추동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친일파에서 이승만 정권까지 근대 한국인의 내셔널리즘에는 (강력한 저항과 혁명의 열기 이외에) “소국은 소국인 까닭에 자국을 자력으로 지킬 수 없으며 따라서 열강들에게는 소국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는 소국적/소국적 의식이 복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⁴⁵⁾ 의식 자체가 지정학적 상황의 산물이자 정세 분석의 일종이라 할 때, 실제로 이러한 논리가 중대한 흐름으로 존재했는지, 또 과연 이러한 경향을 소위 내셔널리즘이라는 범주에 포괄할 수 있는지 자체는 논쟁거리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허헌의 아일랜드 등의 소국에 대한 관심이 보여주듯이 소국의식이 곧 의존 가능한 세력에 대한 ‘뻔뻔한’ 요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세계피압박민족대회 참가를 위해 체류했던 벨기에에 대해서도 그는 “적은 나라이지만 꽤나 재미있게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폴란드에 대해서도 “신흥국이니만치 모든 것이 아직 불만한 것은 없는데 과거의 관계로 독일 및 러시아에 대한 감정은 여전”하다고 쓰고 있다. 다시 말해 대제국 대 식민지라는 세계상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독립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신흥국, 공감의 대상인 피압박 민족 등이 발견되고 있었고, 이들과의 연대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었다.

44) 허헌, 같은 글, 16쪽.

45) 木村幹, 『朝鮮/韓國ナショナリズムと「小國意識」—朝貢國から國民國家へ』(京都ミネルヴァ書房, 2000). 서문 및 제8장 참조. 그의 견지에서 보자면, 아마 친일 내셔널리즘, 친미 내셔널리즘과 같은 용어도 가능할 것이다.

허헌은 아일랜드인의 환대에 대해 “아일랜드는 정치적 환경이 (累) 같은 경우의 외국인을 대함에 유별”하다 판단한다. 그리고 의회 논의 참관 후, “아일랜드는 신홍하는 중국 국가에 기대와 원조를 아끼지 않는다”며 조선사정을 알고 싶어하는 상하원의원들에게 깊이 감동한다. 허헌은 런던에 도착한 후, 조선사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아일랜드의 대학, 재판소, 기타 단체에 조선신문과 조선사정집을 발송하는 한편, 인디펜던스 신문사를 방문해 아일랜드의 현재와 과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대국과 소국-비교주권론적 사유를 통한 독립의 방략을 생각할 때, 소국의 식과 비서구에 대한 관심, 제국 내 연대 가능 세력에 대한 모색이야말로 이 시기의 지정학적 의식이 보여준 주요 특징이라 할 것이다. 만유라는 형식을 통한 학습과 그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 자기 제시-비교적 가장 자세히 기록된 아일랜드의 여정이지만, 오히려 허헌은 빼먹은 말이 많아 심심하기 짝이 없지 않은지를 걱정하며 사죄를 구하고 있다. 조선사정과 관련해 자신의 경험을 환기시켰지만, 양 지역의 사정이 충분히 비교되지 못했고, 또 비교하였다 해도 ‘쓸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⁴⁶⁾

3. 미국 여행 혹은 관계로서의 지리-고도 자본주의의 속의 일화들

이는 것은 쓰지 않는다. 씌어진 적 없는 것, 꺾지 않았던 경험을 쓴다. 여행기 읽기에서 빠질 수 없는 재미가 유일무이한 여행의 에피소드들이다. 지식의 제공과는 다른 서사적 재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숨겨진 장소의 정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기지의 사실들을 쓰지 않는 것이나 사실보다 관점을 쓰는 태도도 여행기의 중요한 작법인데, 양자 모두 해당 공간에 대한 지식이 대중화되었을 때 시도된다. 이미 알거나 알고 있다고 믿는 공간이 새롭게 보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나 관점을 통해 그 공간이 낮설게 될 때이기 때문이다.

46) 이렇게 약소 민족 간의 공감과 연대의식에 기반해 씌어진 여행기는 1930년대를 전후해 다양하고도 광범하게 등장한다. 예컨대 1931년 스웨덴 유학 후의 귀국길에 마하트마 간디와 사로지니 나이두(Sarojini Naidu, 1879-1949: 인도의 사회운동가, 시인) 여사를 만난 최영숙이 느끼는 다음과 같은 친밀감 역시 식민지인들 간의 연대의식 때문일 것이다. “은연중에 그녀가 믿음직한 한 동지로 생각되었으니, 아마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사는 언제나 조선 사정에 대해 잘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선 사정을 인도에 소개하라고 몇 번이나 권유하였습니다.” 최영숙은 이러한 여행과 만남을 통해 차라리 자신이 유학한 스웨덴이 아니라 인도의 사례를 내세워, “한갓 국민운동뿐 아니라 계급타파운동도 곁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국민 운동이 여성 운동을 곁해야 함을 직간접적으로 역설한다. 최영숙, 『간되-와 나이두 會見記, 印度에 4개월을 滯宿하면서』, 『삼천리』, 1932년 1월호, 46-48쪽.

예컨대 “나는 파선(破船)을 당하여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명의 절대한 위협을 받아 본다면 담력이 그야말로 철석같이 다져지리라. 내 생각에는 파선이 된다 하여도 나만은 배창이 널문을 뜯어 허리에 깔고 용감스럽게 해엄을 쳐서 뒤에 무선전신을 받고 달려오는 구조선에 구명(救命)이 될 성 싶다. 그렇다면 이 기행문도 다소 재미있어지련만, 아뵘싸 이것도 늙은 청춘의 한 때에 그리는 로맨틱한 화폭인가”라는 승선 소감에서 알 수 있듯이, 허헌의 여행기는 일종의 고난을 극복하며 이상에 이르는 영웅의 순례와 대중적 읽을거리로서의 성격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의 구절을 보자.

이제는 샌프란시스코(桑港) 시가를 소개할 차례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이를 피하려 한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든 모양으로 20층, 30층의 석조, 벽돌(煉瓦), 철근 콘크리트 등 대건축물이 천일(天日)을 가리게 또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게 기막히게 늘어섰으니 그를 『가옥의 대삼림지대(大森林地帶)』라고나 설명할까 그 외에 다른 해설의 말을 나는 못 찾겠고 또 각국 인종이 가로(街路)마다 워작워작 달려가다가는 워작워작 달려오며 자동차가 까—만 박개미떼 같이 늘어선 것과 해륙(海陸)에서 울리는 쇠망치, 기적소리 등 동원령이 내린 전쟁지대가 아니면 상상도 못하리만치 복잡, 단단한 품이 졸(拙)한 내 붓끝으로 그려낼 재조(才操)가 없는 것을 잘 아는 까닭이다.⁴⁷⁾

결코 해외여행이 대중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세계 지식과 그 한 양식으로서의 여행기 자체는 낫선 것이 아니었다. 한편 실상 그것을 마주한 여행자의 입장에서 사진이나 영화, 잡지 등을 통해 독자도 이미 접했을 법한 장면들이란 심각한 표현의 곤란을 야기한다. 한시(漢詩)적 서경의 과잉과 거리를 두는 한편, 이미 존재하는 세계 지식과 지리학적 지식이 포함하는 판에 박힌 표현도 피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개벽』, 『별건곤』 등의 잡지와 신문을 접한 ‘독자들의 상상’ 속에서, 하나의 장소는 그에 얽힌 관례화된 표현과 함께 기억되어 있었다. 특히 영화 등을 통해 독자의 상상수는 그것을 ‘이미 보았다.’ 1930년대 전후는 언어, 교통, 복제기술을 통해 이미 풍경이 미디어 안에서 고정화하는 경향이 시작된 시기였다.⁴⁸⁾ 허헌으로서

47) 허헌, 『世界一週旅行(第二信)』, 꽃의 『바리우드』를 보고, 다시 太平洋 건너 愛蘭으로!, 『삼천리』 제2호, 1929년 9월호, 22쪽.

48) 미디어의 고고학이라는 방법을 통해 문학을 포함한 언어, 철도 등을 포함하는 교통, 잡지 및 엽서 등을 포함하는 복제기술을 통해 풍경의 생산되는 방식이 논한 책으로는 다음의 서적을 참조할 수 있다. 佐藤健二, 『風景の生産・風景の解放: メディアのアルケオロジー』(東京: 講談社, 1994). 이전의 여행기들과 달리 1920-30년대 여행기들은 개인의 기록이 대중 서사의 일부이자

는, 규모에 대한 감탄, 특정 장소의 특정 산물로 대변되는 일종의 ‘명소문예(名所文藝)’와 같은 “규범화된 풍경”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 표상공간을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전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 일종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허헌은 차라리 이 풍경을 상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조선의 표상체계에서는 일종의 비상사태에서나 가능한 번잡함(“전쟁지대가 아니면 상상도 못하리 만치 복잡다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풍경의 표상을 사양하는 한계적 표현을 택한 것이다.

허헌이 풍경의 묘사를 주로 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처럼 대중화된 세계 지식 속에서 풍경이 아니라 지정학이나 사건을 염두에 두었다는 데에도 그 한 이유가 있다. 오히려 이어지는 구절에서 허헌은 샌프란시스코라는 미국의 관문에서 ‘청원에서 독립선언’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보고 있으며, 미국독립전쟁에 있어서의 민중활동과 자유의 고장으로서의 미국문명의 의미를 상기하는 것이 “이방인으로서 미국에 대하여 지킬 예의”라고 말한다.

그러나 관례화된 감탄과 거리를 두려는 허헌의 태도는 미국 본토에 진입하자 견지하기 힘든 것이 되고 만다. 앞서 보았듯이 허헌의 미국에서의 여정은 샌프란시스코-LA-시카고-뉴욕-워싱턴으로 이어지는데, 그의 여정이 지닌 정치성에도 불구하고 여행기는 근대문물에 대한 경탄과 그와 대조된 조선현실에 대한 인식을 동반하게 된다. 감각의 근대성이 생겨나오는 할리우드에 대한 허헌의 관찰을 보자.

나는 이 로스앤젤레스(羅府)에서 수십만 팬들이 동경하는 영화의 성지(聖地) 『할리우드』를 보았다. 『황금광시대』에 나오던 채플린, 『바그다드의 도적』에 나오는 더글라스, 『선라이즈』의 케너 등 모든 유명한 남여배우들과 『유니버설』, 『폭스』, 『메트로골드윈』 등 온갖 대규모의 영화회사가 뽀뽀히 들어선 순전한 활동사진의 천국이라. 그 『스튜디오』의 웅대한 것이 실로 놀랄 만 하였으니 비행기격납고같이 굉장히 큰 집채가 10여개 연(連)하여 있었다. 이 속에서 릴리안 기슈, 클라라 보! 로이드, 쿠간, 등 모든 천재들이 밤낮 울고 부는 흥내를 내면 그것이 수 천 권의 필름이 되어서 전미(全美)의 상설관과 구라파 아세아에 일시에 개봉[封切]이 되며 심지어 우리 조선 서울친구들도 조선극장이나 단성사를 통하여 그를 구경하고는 흥내 내던 배우들 모양으로 정말 울고불고 야단이다. 실로 활동사진은 세계를 축소하여 놓았다 할 것이요, 만국인의 정서를 통일하여 놓았다 할 기관임에 틀림없다. …(중략)…우리 부녀는 안내인을 따라 온종일 장내를 돌아다니며 포복절도할 희극이 박히는 마당도

일반화된 지식으로 전환되고, 이것이 다시 복제기술을 통해 확산된 세계 경험이 다시 개인 기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전의 사행기나 관료들의 기록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구경하였고, 눈물이 비 오듯 하는 초특작대비극이라 할 장면도 보았고 러브신의 광경도 보았는데 들은즉 그네들이 세계에서 모다 굴지(屈指)하는 유명한 배우들이라 한다. 나올 때에 카페에 들렀더니 가장 모던식의 차림차림을 한 여러 영화배우들이 잡담하며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희귀(稀貴)하더라. 아마 세계의 모든 최신유행과 담화 재료는 여기에서 나오는 듯.⁴⁹⁾

최신유행과 담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사진의 본고장 헐리우드. 영화사, 영화명, 배우명을 줄줄이 늘어놓으며 조선극장이나 단성사라는 통로를 거명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 여행자는 모던 문화의 향수자이자 그 생산과 유통의 경로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이러한 거명 자체가 이미 조선에 존재하는 문화적 상황을 환기하는 방식이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로 활동사진은 세계를 축소하여 놓았다 할 것이요, 만국인의 정서를 통일하여 놓았다 할 기관임에 틀림없다”는 그의 판단은, 소위 자본과 문화를 통한 세계의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본주의의 잉여에 대한 관심과 헐리우드라는 잉여의 상정에 대한 관심은 이를 지탱하는 것으로서의 자연과 농업의 풍성함, 기계화된 농업과 공업에 대한 조망으로 이어진다. 흥미롭게도 대중적 지식과 일화형 글쓰기를 넘어, 미국에 대한 이해를 문명사적 판단으로 이끄는 것은 오히려 기차다. 단적으로 말해, 자연과 자본, 생산과 소비 모든 면에서 “황금의 나라”인 미국에 대한 경이감은 특히 기차 안에서 보는 끝없는 풍경들로 인해 배가된다. 철도여행이 여행자와 공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멈추고, 풍경 공간을 지리적 공간으로 변환시킨다고 할 때, 이 끝없는 지리는 미국 자본주의의 힘을 상기시킨다. “한 시간에 54Km를 가는 그 빠른 기차로도 5-6시간 동안을 순전히 포도밭 속으로 같으니 어지간히 굉장하였”다는 감탄은 곧이어 “그 놈의 과일은 누가 다 없애는지 생산도 거대하거나와 미불상 소비도 거창한 썸”이라는 경이감으로 이어진다. 즉 풍경을 지리화시키는 기차 여행의 경험은 지정학 및 문명론적 이해를 추동하는 썸이다.

전근대의 여행이란 하나의 부분적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도착을 뜻하기에, 여행자는 여행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기 힘들다. 반면 기차 여행이 가능케 한 지리적 공간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를 하나의 단편 공간으로 놓고 그런 한에서 전체 구조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다.⁵⁰⁾ 지리적 공간은 조직화

49) 허헌, 『世界一週旅行(第二信), 淸의 「바리우드」를 보고, 다시 太西洋 건너 愛蘭으로!』, 같은 책, 22-23쪽.

된 공간이며, 조직화된 공간은 그 공간 전체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유도한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 세운 철주(鐵柱)의 10배나 되는 큰 쇠기둥을 수 백주 세우고” 끝없이 이어지는 송유관을 통해 전세계 석유 중 7할까지 공급하는 “황금의 나라”의 규모와 마주쳤을 때의 적막감. “동양의 공진회나 박람회 유가 아닌 독립 50주년 기념 만국박람회”, 제일 싼 방도 일반 기자의 월급에 가까운 호텔들, 일상적 수준에까지 제도화된 민주주의, 강렬한 애국심 등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지리는 ‘비교’라는 방법 자체를 중단시키는데, 따라서 이 거듭되는 파노라마 속에서 허헌은 미국문명 자체를 긍정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에 대한 허헌의 최종 감상은 이렇다. “좌우간 나는 미국와서 물질문명의 절대한 위력을 깨달았다. 어쨌든 뉴욕에는 두 사람에 한 대씩의 자동차가 있다 하니 그네의 부와 활동력을 넉넉히 짐작할 것이 아닌가.”⁵¹⁾

이러한 비교 불가능한 규모에서 오는 적막감은 그곳에서 쌀농사로 활약하는 조선인 대농장주를 비롯한 곳곳의 동포들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어렵사리 수습된다. 거대한 자연과 이를 경영하는 미국의 기계들에 대한 놀람은 “동포들의 건투하는 모양을 보면 알 수 없는 감격에 가슴이 차더라”라는 말을 통해 겨우 봉합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교포 사회란 이러한 비교의 가능성을 여는 정보의 원천이자, 비교불가능한 문명 간 차이와 결락을 봉합하며 일정한 아이덴티티로 귀환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인지 모른다.

예컨대 첫 여행지인 하와이의 경우를 보자. 배 안에서 전보를 쳐두었기에, 재하와이 조선인 교민단장과 부인구제회중앙부장 등 많은 조선인들이 부두에 마중을 나온다. 기독교회관에서 환영회가 열리고 그 석상에서 허헌이 조선 내 제 1, 2차 독립운동의 진정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허정숙 역시 조선 내의 부인사회의 현상이라는 주제로 상세한 강연을 행해 뜨거운 성원을 얻는다. 7월 4일 한인기독교회관에서 『자유독립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행하며 이것이 그 지역 한글신문인 『국민신보』에 게재된다. 그리고 장소를 옮길 때마다 재외 한인들과 유학생들로부터 현지 사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취득한다. 모든 국가에서 동포의 수를 세는 심리 구조는 검열상의 제약과 민족주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⁵²⁾ 교포 사

50) 철도여행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는 다음 책을 참조. 李孝德, 『表象空間の近代—明治「日本」のメディア編制』, 박성관 옮김, 『표상 공간의 근대』(서울: 소명출판, 2002).

51) 허헌, 앞의 논문, 같은 책, 25쪽.

52) 허헌, 『東西十二諸國을 보고 와서』, 『별건곤』, 1927년 7월호. 이 첫 여행기에서 허헌은 방문국들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조선인의 수를 거의 강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회란 내국과 외국 사이의 일종의 접촉 공간이었던 것인데, 여행자들은 이로부터 현지적 앎 뿐 아니라 비교불가능한 두 장소를 잇는 구성력 자체를 제공받는다.

경험 표현의 불가능성을 정치적인 한계로 이야기하며 교포 사회에 대한 서술이나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방식은 허헌의 여행기 전체를 지배하는 수사법이다. 필시 이는 웅색한 정치적 조건 속에서의 선택일 터이지만, 흥미롭게도 모든 여행지에서 교포의 숫자를 세는 일은 이 두서없는 여행기에 묘한 리듬과 매듭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다. 망망대해와 끝없는 대륙들 안에서 그가 민족이라는 점을 통해 이동로를 얻고 또 정보를 얻고, 또 형식을 얻고 있었던 까닭이다.⁵³⁾

IV. 식민지 여행 서사의 구조-언표불가능성, 쓸 수 없는 본 것들

1. 서구 표상의 수사학적 양상

서구문명의 핵심인 자본주의, 제국주의, 민주주의 등의 문제가 조선과는 비교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때 관찰자의 심리는 흔히 수拙(守拙)이나 비관을 향해가게 된다. 경험은 묘사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혹은 말 못할 것이 된다. 묘사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물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그 원리의 장악을 뜻하기 때문이다. 묘사란 모방이기에, 잠재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사물이나 제도가 모방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질 때 관찰자는 이를 정당하게 묘사해내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설명될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것은 묘사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할 때 허헌의 경우, 여행기에서 흔히 등장하는 표상불가능성의 경험은 풍경이나 견문한 사물, 문물에 대한 장악력의 여부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경험 자체의 성격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허헌이 대중적 여행기의 문법과 재미에 대해 나름의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산중된 표상 체계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전통적 용사(用事)와 새로운 수사학이 하나의 지면에 동시에 등장한다.

53) 해외 한국인이라는 정보전달자는 앎과 원천이자 이동의 통로이면서도 늘 의심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이 번역자가 두드러지는 한 이 여행지는 결코 비평가의 위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질수록 ‘해외의 우리사람’, 즉 번역가는 동화된 반쪽아리 민족으로 평가절하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비평가는 여행가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 어학에 피곤한 머리를 쉬이려고 밤에 갑판에 나가면 장두(橋頭)에 일륜명월(一輪明月)이 걸린 것이 정말 좋았다. 강천일색무섬진(江天一色無纖塵) 교교명월고 일륜(皎皎明月孤月輪)⁵⁴⁾이라고 張若虛가 넷날에 읊었다더니 실로 그런 광경은 중국의洞庭湖 가튼 월광에서 차츰 것이 아니라 9만리 長空아래 깨끗이 벌려진 이런 太平洋 大海上的 月景에서 읊혀질 것인가 한다.⁵⁵⁾

(나) 우리가 탄 미국 샌프란시스코(桑港) 가는 배는 무슨 대통령의 이름을 따온 삼만여 톤 짜리 배인데 묘령의 백인여자들이 어떻게나 많이 탔던지 식당에나 갑판 위의 운동장이나 무도실(舞蹈室)에 들어가 보면 남성 금제(禁制)가 아닌가 하리만치 꽃같이 어여쁜 여자들이 가득차서 재깍거리고 있는 것이 실로 장관이다. 그 등의자에 걸터 앉아 대패로 민 듯 간 듯 하게 생긴 두 종아리를 내어 놓고 바글바글 웃어가며 저희끼리 속살거리는 그 모양을 바라보면 『브라우닝』이라는 영(英)시인이

아아, 다시 젊어지어
연애하고 싶다
다시 한 번만 사랑하고 싶다

하고 부르짖던 모양으로 또 『괴테』의 『파우스트』가 『메피스트』의 힘을 빌어 다시 청춘이 되어 즐기듯이 나도 한 번만 젊어지고 싶은 생각에 가슴이 탄다. 어여쁜 여자란 남의 가슴을 잡아 뜯은 것이 천직인 모양으로 태평양 상의 선(船) 중에서 나는 한참 땀을 뺐었다. 그러나 나비 같은 그녀들을 만남으로 나는 젊어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늙어지거나 앓는가. 가가(呵呵).⁵⁶⁾

정치적 여정의 첫 출발 선상에 걸맞게, 허헌은 이 이행의 공간에서 소위 한문맥(漢文脈)과 구문맥(歐文脈)이 절합된 표상의 체계를 동원해 자신의 풍경과 감상을 표현하고 있다. (가)의 경우, 아무 부표도 없는 배 위에서 오직 옛 교양에 의지해 풍경을 써나갈 수밖에 없는 한 동양인의 모습이 선명하다. 하와이로 가는 배 위에서 영어를 공부하며, 당(唐)시인 장약허(張若虛)의 시를 떠올리고 있는 허헌의 모습은, 그러나 하와이를 떠나면서는 (나)와 같은 표현으로 뒤바뀐다. 장약허에서 브라우닝과 괴테로의 수사학적 이동은 그 자체로 여정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54) 당나라 시인 장약허(張若虛)의 원시는 좀 달라서, “江天一色無纖塵 皎皎空中孤月輪”(강과 하늘은 온통 가는 티끌 한 점 없고 밝디밝은 공중에는 외로운 둥근 달이여)로 되어 있다. 아마 기억에 의존해 읊어낸 것이라 여겨진다.

55) 허헌, 『世界一週旅行(第一信)』, 太平洋의 波濤 차고 黃金의 나라 美國으로! 布哇에 잠잠 들러 兄弟부터 보고, 『삼천리』장간호, 1929년 6월 12일, 7쪽.

56) 허헌, 앞의 글, 같은 책, 9쪽.

로 생각된다. 더구나 개인적 시간의 중층성 속에서 보더라도 규장각에서부터 근대 법률가, 교육자, 언론인까지의 이력이 수사체계 안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한자문화권의 문어 세계에서 알파벳 세계의 구어로의 이동에서 그는 잃어버린 젊음을 떠올린다. 관광과는 구별되는 여행, 특히 유학과 모험의 길인 해외여행이란 어디까지나 청년의 것이기에, 허헌으로서는 장소의 정신에 합당한 표상 체계 속에서 발언하며, ‘되돌린 젊음’의 메타포로서 여행을 이해하려 한다. 장성한 딸과 함께 하는 여행이었고, 조선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지만 허헌의 나이는 사실 42세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학은 곧 중단된다. 하나는 물질문명 자체의 절대적 위력에도 불구하고 여행의 목적상 그런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요인 때문이었다. 그는 “이밖에 각지의 대학, 도서관, 재판소, 신문사, 공장, 회사 등 모든 시설에 놀라운 것이 많았으나” “또 『나이야가라』 其他의 瀑布, 河沼, 山岳 등 名勝도 대개는 구경하였으나” 그에 대한 표현은 사양하기로 한다. “좌우간 美國 와서 물질문명의 절대한 위력”을 깨달았다는 말로 표상의 과업을 대체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그의 여행기는 오히려 풍경을 표상하는 체계로서의 여행기라기 보다는 해당 장소에서 펼쳐진 정치적 활동에 대한 암시와 약간의 일화들의 제시에 그 중심이 놓여있다. 여기서 서구란 찬탄의 대상인 문명이나 거대한 풍경이 아니라, 일종의 관계와 사건으로서 존재한다. 박승철·정석태·나혜석 등이 주목하거나 예찬했던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지역을 허헌은 그냥 통과한다. 조선과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보자면 이들 지역은 일종의 경유지인 것이다. 프랑스 사람은 교활하고 사치가 많대거나, 독일 사람은 규범적이고 정직하며 진취적이라거나 하는 국민성에 대한 평가가 없지 않지만, 짧게 머문 장소들에 대한 포괄적 총평일 따름이다. 허헌은 산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 속에서 이동하며 늘 사람을 만난다. 주로 정치인이거나 정치화된 언론인들이다. 풍경이 아니라 풍속과 정치에 주안을 둔 여행인 것이다. 영국 풍속을 알기 위해 영국배를 타고 떠났다는 언급이나 모든 장소에서 정치가를 찾는 그의 여정은 이 여행기를 ‘발설할 수 없는 경험들’로 점철된 비밀로 가득 찬 기록으로 만든다.

2. 정치적 언표불가능성

허헌의 여행기에서 지배적인 표현법은 (가)와 (나)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언표불가능성에 관한 전제들이다.

“그때 부두에서 잔별(錢別)하여주는 광경이야 내가 관속에 든들 잊혀지랴. 그러나 나는 하와이(布哇)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산과 같이 많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마는 것을 이에 슬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어린아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날더러 금강산이고 서울 이야기를 더하여 달라고 조를 때에 알 수 없게 목이 메는 듯한 무슨 압박을 받게 되더란 말도 모다 피하는 것이 여기에는 좋겠다.”⁵⁷⁾

“보고도 알지 못하겠고, 알고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⁵⁸⁾는 형태의 근대형성기 이래의 전형적인 여행기의 문법-표상불가능의 제시와 함께 주목되는 부분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장소와 사건에 관한 것이다. 가장 말하고 싶어했던 소련여행 부분에 기재된 “농로방문조 십여행 삭제(農露訪問條十餘行削)” 식의 검열은 식민지 여행 서사의 근원적 한계 범주를 극히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최초의 여행기에서 소련 관련 기록은 “로시아에서 동포들과”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사진이 전부이다. 소위 북국(北國), 소비에트로의 여행이란 에피소드나 예술기행, 생활상의 문제 등의 형태로는 표현할 수 있을망정⁵⁹⁾, 사회주의가 시현되는 장소에 대한 표상의 작업이나 평가란 어려웠다.

못다 말한 견문, 즉 쓸 수 없는 본 것들이란 어떤 의미에서 식민지 여행 서사의 문법과 구조⁶⁰⁾를 그대로 반영한다 하겠다. 다시 말해, “식민지적 이동성은 제국 일본의 침략과 팽창, 식민지와 식민지인에 대한 통치과정이 가당게 되는 지리적 종속적 경계, 그리고 서사적 상상의 경계” 안에 있을 때 표상가능해지는 것이며, 그

57) 허헌, 앞의 글, 7쪽.

58) 근대형성기 관료들의 사행(使行) 기록의 수사학적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황호덕,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서울: 소명출판, 2005).

59) 예컨대 나혜석, 『СССР, 歐米遊記의 第二』, 『삼천리』, 1933년 1월호. 나혜석의 소련기행은 기차상의 풍경, 생활상의 불편, 검속의 불편, 미술관 순례 등에 국한되어 있다시피 하다. 유럽과 비교된 “모스크바 시가는 너절하다.” “비참한 일이 많으며 외국 물건이 없”고, 세관 조사는 “떡거북하다.”

60) 식민지 서사에 있어서의 표현불가능한 지역, 장소의 문제와 이를 대리하는 표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비롯한 이해령의 작업을 참조. 이해령, 『감옥 혹은 부재의 시간들 -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재현한다는 것, 그 가능성의 조건-』, 『대동문화연구』 제64권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런 의미에서 “식민지 지식인의 이동성은 근대성이 아니라 중국에는 그 자신의 식민지인임을 확인케 만드는 서사”⁶¹⁾로 귀착된다.

허헌 역시 표상불가능성에 기인한 송고라는 서구 여행기의 문법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 이유는 차라리 그 이전의 여행기를 지배했던 수사학과 해석 상의 표상불가능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언표불가능성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는 말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검열과 같은 표상의 곤경을 피하면서도 ‘정치’ 그 자체를 전달한다. “외국에 대한 정치적 형편이나 경제방면이나 사상경향 등은 여기서 말을 한 대도 취급하기 곤란하시겠지요”⁶²⁾라는 그 자신의 언급처럼 그로서는 필드워의 결과를 구성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할 수 없었지만, 그러한 필드의 존재를 계속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보기 어렵다. 소련을 다녀왔다는 사실, 그리고 유럽 여행 중에서도 비교도 안되게 긴 시간을 할애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텍스트의 정치성이란 어떤 의미에서 ‘언표불가능한’ 필드의 존재를 그 자체로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는지 모른다.

V. 쓸 수 없는 것, 쓰지 못한 것을 읽는 방법-결론을 대신하여

1920년대 말-30년대 초를 거쳐 많은 여행기들이 대중의 지리적 상상력을 자극하며, 지정학적 사유를 촉발시켰다. 그 중에서도 이들의 여행이 특별한 분석을 요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점들 때문이다. 우선 첫째, 허헌의 여정은 외교를 위한 사절이나 상주 혹은 유학이나 이민과는 거리가 있는 ‘여행 자체를 목적으로 전면화한 여행’이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스스로가 기획한 ‘귀환이 기약되어 있는 일시적 떠남’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행의 목적이나 과정 역시 비정치적이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둘째 허헌(과 허정숙)이 당대 식민지 조선의 정치 및 교육에서 갖는 위상, 민족운동/사회주의/여성운동에서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 이 여행 자체가 출발에서부터 귀국(후)까지 일종의 전조선적 특이 사건으로서 취급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의 출발에서 이동 및 귀국까지가 『동아일보』 등

61) 이혜령, 『‘트랜스’ 식민지-제국과 식민지 서사』, 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학술원, 『한일 문학·문화의 ‘트랜스내셔널’과 그 전망』(동아시아 문학·문화 연구회 2010 하계 워크숍 자료집), 2009년 8월 20일.

62) 허헌, 『東西十二諸國을 보고 와서』, 『별건곤』, 1927년 7월호, 44쪽.

의 일간지들을 통해 시차를 두고 중계되다시피 했다. 허헌 자신이 견문을 위해 ‘신문기자’를 칭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허헌의 여행은 미디어 보도와 동시에 이루어진 최초의 세계 여행이었다. 바로 이런 점이 이들의 여행기가 소구될 수 있는 대중적 기반을 형성했다. 셋째, 허헌의 여행은 시점 상으로 『별건곤』이나 『삼천리』와 같이 세계 지식의 대중화를 기획했던 잡지들의 등장과 때를 같이 하고 있었기에, 이들 매체들을 통해 ‘그 때 그 곳’이 지속적으로 환기되었으며 매호 게재된 사진을 통해 임장감(臨場感)을 더했다. 당대의 세계상 구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허헌의 여행기가 차후 여행기를 1930년대의 대표적 장르로 부각시킨 『삼천리』 창간호의 사실상 첫 기고문이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그의 글 바로 앞에 실린 창간호의 설문, “돈 십만 원이 있다면?”에 대한 허헌의 답은 명쾌했다. “준재(俊才) 십 수 명을 구미각국에 파견하겠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대답은 바로 이어지는 그의 여행기에 의해 정당화된다. 넷째 허헌 일행의 여행기는 당대의 어떤 관련 글보다는 정치적인 활력이 풍부한 텍스트이다. 더구나 허헌이 견문한 각국의 사정과 그로 인해 형성된 세계 인식이 차후 그들의 정치적 선택에 중요한 기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들의 여행은 식민지 조선의 정치적 기획이 제국일본과 그 식민지들이라는 틀을 넘은 세계 전체의 지평에서 구상되었으며, 식민지에 대한 사고 역시 비교 식민지론적 틀을 내장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상정토록 한다. 마지막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길지 않은 여행기들이 신생독립국의 등장이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가능해진 약소 민족들 간의 연대 의식 속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오리엔탈리즘이 강력하게 발동하는 제국에서 식민지로의 여행이나, 문물시찰을 통한 체제 강화와 관련된 식민본국 시찰(소위 ‘내지시찰단’)과는 다른 형태의 인식과 서술 구조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커다란 난점이 있다. 다 쓰지 못한 것과 쓸 수 없었던 것이 너무 많았다. 필자 허헌이 연재 도중 구속되어 버림으로써 벨기에 이후의 유럽 분 전체가 빠져버렸다. ‘쓰지 못한 것’(the unwritten)이 남겨졌으며, 영원히 채워지지 않았다. 또한 정치적인 제약으로 인해 벨기에에서의 사건, 길었던 소련 여행의 체험, 중국에서의 일들이 모두 ‘쓸 수 없는 것’(the unwritable)의 영역 안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신한민보』, 『少年』, 『青春』, 『東亞日報』, 『朝鮮日報』 등.

杞溪 俞吉濬 輯述, 『西遊見聞』, 開國四白九十八年, 出版校閱 魚允迪·尹致昨 發行
所 交詢社, 1895.

기 자, 「세계일주의 여비」, 『삼천리』, 1933년 9월호.

_____, 「명사의 멘탈테스트 其四: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허헌 씨」, 『삼천리』제3호,
1929년 12월호.

_____, 「許憲 父女와 鄭鍾鳴 母子」, 『삼천리』, 1932년 2월호, p.32.

_____, 「現代女流思想家들(3), 붉은 戀愛의 主人公들」, 『삼천리』, 1931년 7월호.

나혜석, 「CCCP, 歐米遊記의 第二」, 『삼천리』, 1933년 1월호.

나혜석 외, 서경석·우미영 편, 『신여성, 길 위에 서다』(호미, 2007).

이극로, 『苦心四十年』(을유문화사, 1947).

최영숙, 「간디-와 나이두 會見記, 印度에 4개월을 滯宿하면서」, 『삼천리』, 1932년
1월호.

허 헌, 「東西十二諸國을 보고 와서」, 『별건곤』, 1927년 7월호, p.44.

_____, 「世界一週旅行(第一信), 太平洋의 波濤 차고 黃金의 나라 美國으로! 布哇에
잠잠 들러 兄弟부터 보고」, 『삼천리』창간호, 1929년 6월 12일.

_____, 「世界一週旅行(第二信), 꽃의 「바리우드」를 보고, 다시 太西洋 건너 愛蘭으로!
」, 『삼천리』제2호, 1929년 9월호.

_____, 「世界一週旅行(第三信), 復活하는 愛蘭과 英吉利의 姿態」, 『삼천리』제3호,
1929년 12월호.

_____, 「新興自由國」 愛蘭印象記」, 『혜성』, 1932년 4월 15일.

_____, 「新聞記者로서 얻은 세 가지 印象」, 『신동아』, 1934년 8월호.

_____, 「祖國解放의 가장 勇敢한 鬪士는 共產黨이었다」, 『解放日報』, 1946년 4월 21일.

허정숙, 「뉴-욕 通信」, 『신여성』, 1926년 10월호.

_____, 「울 줄 아는 人形의 女子國, 北米印象記」, 『별건곤』제10호, 1927년 12월 20일.

高浜虚子, 『朝鮮』(東京: 實業日本社, 1921).

通三機密 第274號, 『甲種要視察人 許憲動靜二關スル件』(發送者: 外務省 通商局長 受信者: 朝鮮總督府 官房外事課長), 1926年 12月 15日 發送, 1926年 12月 15日 受信,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件-在歐米(8)』.

公機密 299號, 『甲種要視察人 許憲寄港二關スル件』(發送者: 桑島主計, 受信者: 幣原 喜重郎), 1926年 7月 19日 發送, 1926年 8月 7日 受信,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件-在歐米(8)』(문서철명).

Horace Grant Underwood,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Yokohama: Kelly & Walsh; London: Trubner & Co, 1890).

George Heber Jones, 英韓字典=영한조던: *An English-Korean dictionary* (Tokyo, Japan: Kyo Bun Kwan, 1914).

2. 국내서

고준석, 『조선공산당과 코민테른』(서울: 공동체, 1989).

박영섭, 『개화기 국어 어휘자료』1-4(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1994).

박호성,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서울: 까치, 1989).

성현경, 『1930년대 해외 기행문 연구-『삼천리』소재 해외기행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0.

손유경, 『나혜석의 구미 만유기에 나타난 여행 산책자의 시건과 지리적 상상력』, 『민족문화사연구』제36호(서울: 민족문화사연구소, 2008.4).

심지연, 『허헌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이혜령, 『감옥 혹은 부채의 시간들 -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재현한다는 것, 그 가능성의 조건-』, 『대동문화연구』제64권(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_____, 『‘트랜스’ 식민지-제국과 식민지 서사』, 『한일 문학·문화의 ‘트랜스내셔널’과 그 전망』(동아시아 문학·문화 연구회 2010 하계 워크숍 자료집), (서울: 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학술원, 2009년 8월 20일).

인태정, 『관광의 사회학』(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조준희, 『김법린의 민족의식 형성과 실천-1927년 브뤼셀 연설을 중심으로-』, 『한

- 국불교학』제53집(서울: 한국불교학회, 2009.3).
- 차혜영, 「세계체제 내 식민지 근대의 심상지리: 1920년대의 해외 기행문」,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서울: 소명출판, 2004).
- 허근욱, 「나의 아버지 허허과 언니 허정숙」, 『역사비평』제28호, 1994년 가을호(서울: 역사비평사, 1994.8).
- 황호덕,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서울: 소명출판, 2005).
- E.J.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 Lydia He Liu, *Translingual Practice*, 민정기 옮김, 리디아 리우, 『언어횡단적 실천』(서울: 소명출판, 2005).
- Edward W. Said, *Orientalism*,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서울: 교보문고, 2007).
- 엘리자베스 딜러·라키르도 스코피디오, 「관광여행: 슈트 케이스 스테디」, 『Anywhere』(현대건축사, 1998). (Cynthia Davidson, *Anywhere*, Rizzoli, 1992.)
- 李 孝德, 『表象空間の近代－明治『日本』のメディア編制』, 박성관 옮김, 『표상 공간의 근대』(서울: 소명출판, 2002).
- 田中彰, 『明治維新と西洋文明－岩倉使節団は何を見たか』, 현명철 옮김, 『메이지 유신과 서양문명－이와쿠라 사절단은 무엇을 보았는가』(서울: 소화, 2006)

3. 국외서

- 木村幹, 『朝鮮/韓國ナショナリズムと『小國意識』－朝貢國から國民國家へ』(京都: ミネルヴァ書房, 2000).
- 中根隆行, 『『朝鮮』表象の文化誌 : 近代日本と他者をめぐる知の植民地化』(東京: 新曜社, 2004).
- 佐藤健二, 『風景の生産・風景の解放: メディアのアルケオロジー』(東京: 講談社, 1994).
- 芳賀徹, 「明治維新と岩倉使節団－日本近代化における連続性と革新性」, 芳賀徹 編, 『岩倉使節団の比較文化的研究』(東京: 思文閣出版, 2003).

Rober Burden, *Landscape and Englishness* (New York: Rodopi BV., 2006).

Talal Asad, “The Concept of Cultural Translation in British Social Anthropology”,
Talal Asad, “The Concept of Cultural Translation in British Social
Anthropology”, James Clifford, George E. Marcus eds., *Writing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Gayatri Chakravorty Spivak, *A Critique of Postcoloniaial Reason*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99).

Travel Writing and Making Modern Korea

—A Yellow Politician in the West, Focusing on Heo Heon’s *An Around The World Travelogue*—

Hwang, Ho-Duk

This article examines cultural meanings of the travel done by colonist, Heo Heon(許憲) from May 20, 1926 to May 10, 1927. Heo Heon’s travel does not have a frame of either orientalism or occidentalism; rather, it places a heavy emphasis on the people of a small and weak power, political sympathy and solidarity among nations of (anti)colonies, or the exchange of political programs. In other words, it was not the knowledge of hierarchical world such as a superior representation of western civilization or the discovery of the other that Heo was going to pursue. It was the travel that linked the points of possible solidarity—parties like newly-rise independent states, small countries but with a power and labor parties within an empire. Heo’s travel was not the records of admiration for such development of western cities, but the accumulation of mind concer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sympathy among oppressed nations.

Heo Heon’s *An Around The World Travelogue*, serialized in 『Samcheonli(三千里)』 ever since the popular magazine had launched, highlighted the issue of ‘event’ not the matter of representation as an important descriptive target in the itinerary. Especially, Heo’s travel reveals the contemporary problems with the expression of ‘impossibility of representation’; for example, crucial matters such as ‘socialism’ and ‘independence of nation’ were described with expressions ‘the Soviet union unable to write’ and ‘the events of unspeakable’ respectively. The itinerary showing the territory of the (im)possibility of representation was the calling of a different geopolitics, and also the disclosure of crippled-political features of those days.

Heo’s *An Around The World Travelogue*, largely published through a popular

magazine was the record of the most influential person of politics. Therefore,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itinerary would play a pivotal role in the transition of contemporary society. Moreover, Heo's issue rose by evoking the international political matter of solidarity as a geopolitical problem, conquering the conservative formula like the western for enlightenment or un-representable cultivated progress. Heo Heon's travel would submit a claim for geopolitics of solidarity which is distinguished from geographics of imperialism.

Key Words: *An Around The World Travelogue*, Solidarity against Imperialism,
(un)Writable, (un)Representable, Geopolitical Practice

필자 E-Mail : hodukhwang@skku.edu (황호덕)

투고일 : 2010년 7월 25일/ 심사완료일: 2010년 8월 18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0일